

제2회 전국기술사대회 대회사



이정만 회장

전국기술사대회에 참석하신 기술사 동지 여러분 안녕 하셨습니까.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3만 4천여 우리 기술사를 격려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대통령과학기술특별보좌관 박찬모 박사님, 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님, 대한토목학회 곽결호 회장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영성 이사장님, 대한건축학회 손장열 회장님, 대한전기학회 양해원 회장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김창세 원장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현규 원장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허복 회장님, 한국기술사회 민수홍 고문님, 김명년 고문님, 황상모 고문님, 이환범 명예회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모이고 토론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과 첨단 설비를 지원해주신 한양대학교 김종량 총장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미 기술사 간 상호 협력과 우의를 다지고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미국기술사시험위원회 위원장 진 콜리(W. Gene Coley) 구조기술사님께 박수로써 환영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기술사 여러분!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전국기술사대회 주제는 「세계화 시대의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오전에는 9.11테러로 붕괴된 뉴욕세계무역센터 붕괴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콜리 회장과 전 서울대총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역임한 이기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각 24개 전문분야별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기술사 동지 여러분!

한국기술사회는 국제기술사제도 기준에 맞춰 개정된 기술사법에 규정된 업무 중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술사사무소 등록 등 8가지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술사 등록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과 우리 회 허남 부회장 등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한·미 간 기술

사 상호인정에 대해 미국기술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EU, 호주, 캐나다 등과 추진 중인 FTA 협정 시에도 기술사 상호인정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사회는 사무국 직원도 늘렸고 여러 가지 업무를 확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술사법 체계가 원래 미·일 기술사법 체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사」와 「기술사보」를 연계시켜 시험 근거를 기술사법으로 환원하는 일입니다. 이는 특혜 요구가 아닌 제도 정상화의 사필귀정인 것입니다. 백방으로 노력하여 학·경력 특급기술자 진입을 중단시키고 나니 노동부는 또다시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따라 종목별로 시험기관을 분산하는 등 기술사제도를 훼손하고 기술사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의 기술사제도나 국내 다른 전문자격제도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지난해에 우리나라로 워싱턴 어코드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확산시켜 공학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기술사 시험제도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학교육인증심사에 기술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에 소속된 기술자 중 국내 여섯 개 공과대학 출신 외에는 기술 인력으로 평가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들의 공학교육 질 향상과 기술사 시험과의 연계 및 국제기술사제도의 틀에 맞는 제도 확립을 요구받고 있는 실상인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주제도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화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술사 동지 여러분이 한 가족으로 만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익히며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술사 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에 광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6일

한국기술사회 회장 이정만